

고로쇠 계절이 왔다

전남지역 21일부터 본격 채취
167만ℓ 생산 48억 소득 예상

고로쇠 수액 채취가 오는 21일부터 전남도내 고로쇠 주요 산지에서 시작된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순천, 광양, 담양, 곡성, 구례, 고흥, 화순, 장성 등 도내 고로쇠 주요 산지에서 고로쇠 수액 채취가 본격화된다.

전남지역에서는 1월 말부터 3월 중반까지 고로쇠 수액을 채취한다.

전남지역은 순천 조계산, 광양 백운산, 담양 추월산, 곡성 봉두산, 구례 지리산, 고흥 팔영산, 화순 모후산, 장성 백암산 등이 고로쇠 주요 산지이다.

이곳에는 모두 13만 그루의 고로쇠나무가 서식하는데 올해는 약 167만여 ℓ의 고로쇠 수액을 채취해 48억원의 판매소득을 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 고로쇠수액 채취계획 및 관련행사

시군별 제작량 (천ℓ)	채취 예상 소득액 (백만원)	채취기간 (허기기간)	주제취지역		관련행사
			주요 산	지역	
합계	1,667	4,806			
순천시	70	175 (1.21~3.31)	조계산, 계죽산 (2.1~3.31)	승주, 승광, 황전, 서면 등	-
광양시	700	2,139 (2.1~3.31)	백운산	봉강, 옥룡, 옥곡, 진상, 디암 등	제33회 악수회(3.5)
담양군	30	80 (1.21~3.20)	추월산	용면, 월산	-
곡성군	37	100 (1.21~3.31)	통영산, 봉두산 금음산	오곡, 죽곡, 오산	-
구례군	610	1,700 (2.1~4.30)	지리산	간전, 토지, 광의, 신동 등	시음회(3.15) 신수유축제 향토음식체험(3.23~25)
고흥군	-	-	봉래산, 팔영산	봉래, 영남	-
화순군	22	62 (2.1~3.31)	백오산, 모후산 안양산	북면, 남면, 화순읍	-
장성군	198	550 (1.10~3.31)	백암산, 일암산	북하	제7회 백양고로쇠축제(3월)

고로쇠 수액은 마그네슘, 칼슘, 판질염, 이뇨, 변비, 위장병, 신경 자당 등 여러 미네랄 성분을 함유해 통, 습진 등에 효과가 있어 인기가 높다.

높다.

또 도내 주요 채취 지역 인근의 휴양림·산장에 매년 관광객이 몰려와 이에 따른 농외소득도 10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고로쇠 채취시기를 맞아 전남도와 해당 시군은 고로쇠 수액 시음회·축제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고로쇠 영농조합 등을 자체 개발한 위생 용기를 사용하는 등 고로쇠 수액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다.

박화식 전남도 산림산업과장은

"시군과 학동으로 수액 채취에 사용되는 호스, 접수통, 용기 등의 정결상태 등을 점검해 소비자가 믿고 마실 수 있는 고로쇠 수액 생산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당도 높은 나주 한라봉 출하

나주시 산포면 유촌리 이정석(43)씨가 자신의 시설하우스에서 한라봉을 수확하고 있다. 제주산보다 당도가 높고 큰 나주 한라봉은 3kg 1상자에 3만원 가량에 판매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고흥, 5년간 2067건 계약 심사 275억 절감

고흥군은 16일 "지난 2008년 계약 심사 제도를 도입해 지난 5년간 총 2067건을 심사해 275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고흥군이 시행하는 계약심사제도는 추정금액 기준으로 공사 5000만 원, 용역 5000만원, 물품 500만원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의 원가 산정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고흥군은 전국 군 단위 최초로 2008년 9월부터 계약심사제를 도입, 그간 축적된 심사기법과 정보 공유로 매년 절감 비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수해복구사업 실시설계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부서 와의 지속적인 정보 공유의 장도 마련하고 있다.

/고흥=주각중기자 gjju@

광양시 '보육시설 부모 모니터링단' 발족

광양시는 16일 오후 부모와 보육 전문가로 구성된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단'을 발족, 어린이집 등 보육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위촉된 10명의 단원들은 관내 123곳의 어린이집을 찾아 급식 위생, 안전 및 건강관리 등 보육환경을 모니터링해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할 예정이다.

모니터링단은 2인 1조로 연중 운영되며, 점검당일 시 사회복지과에서 지정한 어린이집을 불시에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어린이집별 연2회 이상 모니터링을 실시해 광양시가 지향하는 보육 명품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광양국제원부자재수급센터

다음달부터 '제3섹터'로 운영

市, 28일까지 사업자 모집

정부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광양 국제원부자재수급센터(이하 원부자재센터)가 다음달부터 민관협력법인(제3섹터) 형태로 조직방식을 변경한다.

원부자재센터는 지난 2010년부터 3년째 해외 조달에 의존하던 국내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원부자재 수급을 지원해왔다.

광양시는 16일 "정부 지원이 끝나는 만큼 공공성과 민간 영역의 경영 노하우를 접목시키기 위해 제3섹터 방식으로 원부자재센터를 운영해나

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부자재센터는 국내외 셀러 및 바이어가 모두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중개거래시스템인 GeTS(Global e-Trade System)를 개발 완료했으며 최근 광양항 배후지역에 대규모 원부자재 복합유통단지조성사업 외자투자를 유치해 성사단계에 있다.

시는 이러한 사업기반을 토대로 조기에 원부자재센터의 흐자운영을 실현할 '민관협력법인 설립 투자사업 타당성 조사'를 지난해 말 착수한 바 있다.

시는 사업자 선정 후 공기업 설립을 위한 상급기관 및 시민의견 수렴 후 설립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정관작성, 법인등기 등 법인설립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시는 GeTS시스템 구축 비용 등을 추산해 주식을 인수(47%)하고, 무역관련 법인과 재정이 튼튼한 개인을 대상으로 적극적 사업자 모집에 나서 차본 참여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사업자 모집은 오는 28일까지 다음달 초 최종사업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시는 이러한 사업기반을 토대로 조기에 원부자재센터의 흐자운영을 실현할 '민관협력법인 설립 투자사업 타당성 조사'를 지난해 말 착수한 바 있다.

시는 사업자 선정 후 공기업 설립을 위한 상급기관 및 시민의견 수렴 후 설립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정관작성, 법인등기 등 법인설립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유기농법 익히고 가축관리 배우고...

전남농기원, 농업인 4만명 대상 시군 교육

전남농업기술원(원장 박민수)

은 새로 개발된 농업기술의 적용과 경영개선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22개 시군 농민들을 대상으로 2013년 농업인 실용교육에 돌입했다.

지난 7일 화순군농업기술센터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603곳에서 669차례에 걸쳐 실시되는 농업인

실용교육은 지역 농민 4만 여명이 참석할 전망이다.

지난 1989년 겨울농민교육으로

시작해 44년째 지속 되고 있는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은 농가의 1년

영농설계와 신기술 보급 등을 통한 영농현장에서 바로 도입해야 할 핵심실천 기술과 농업인의 수요를 반영하면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유기농업, 호흡비 확대재생, 생약조 등 도정 및 농정 현안 과제를 공통과목으로 하고 우리 쌀 및 잡곡의 품질향상, 감, 블루베리 등 고품질 과실 생산, 가축 사양관리 등 영농기술, 농식품 자원화 및 브랜드 마케팅 등 지역 중심 육성품목에 대한 전문 프로그램도 실시된다.

농업기술원은 지난해 말 영농현장에서 교관으로 활약할 시군농업기술센터의 전문지도사 220명을 대상으로 교양성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어권록기자 kroh@kwangju.co.kr

장흥, 우량송아지 연 500두 생산

관산면에 생산단지 준공

장흥축협이 지역 농가에 우량 헐통 송아지를 대량 공급하기 위해 우량 송아지 생산단지를 조성했다.

장흥군은 16일 "지난 11일 이명희 장흥군수, 전남도 축산관계자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산면 농안리 일대 1.5㏊의 부지에 들어선 우량 송아지 생산단지 준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시진〉 새롭게 조성된 우량송아지 생산단지는 축사와 방목장 등으로 구성되며, 한우의 유전적 능력을 개량시킴으로써 한우 등급 향상과 송아지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량 헐통 송아지 생산단지 준공식을



축협에서 징률화된 사양관리로 키워지며, 우량 헐통으로 키워진 송아지는 내년 말쯤 장흥 우시장에서 경매를 통해 농가에 보급될 예정이다.

연간 500두 이상의 우량 헐통 송아지를 농가에 보급될 경우 장흥의 한

우 등급 출현을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희 장흥군수는 "우량송아지 생산기지 준공으로 향후 장흥군의 고급육 생산의 토대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자·중부취재부장

새로운 패러다임의 거침없는 뉴스쇼

TV조선
뉴스쇼



월~금 밤 9시 50분 방송

대한민국 어디서나
채널 19번 TV조선

박은주 조선일보 문화부장

최희준 TV조선 취재에디터

김미선 TV조선 정치부 기자